



사 료 업 계 의 현 황

조 흥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배합사료공장의 변천

우리나라의 배합사료공장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5·16 군사 혁명을 계기로 1962년에 사료용 옥수수과 수수를 도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고 이어서 1963년 8월 14일자로 제정공포된 사료관리법에 의거 모든 사료공장은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배합사료공장 등록을 받도록 되면서 시설기준에 의한 사료공장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된 배합사료공장의 현황과 생산능력을 보면 표 1과 같으며 지역

별 분포와 소속업체별 분포상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항구지역과 이에 인접되어 있는 서울 인천 부산등 수계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수요지에 신설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위공장은 원료조달면을 고려하여 부산등 항구지역에 신설되고 있다.

<표 1> 사료공장 등록 현황과 생산능력의 변천

연도별	공장 등록 현황		1 일 생산 능력	
	등록 수	누 계	시 설	누 계
	개소	개소	톤	톤
1963	7	7	468	468
1964	17	24	1,009	1,477
1965	1	25	30	1,507
1966	3	28	122	1,629
1967	11	39	599	2,228
1968	17	56	694	2,922
1969	9	65	449	3,371
1970	3	68	180	3,551
1971	2	70	110	3,661
계	70	—	3,661	—

(자료 : 농림부)

<표 2> 사료공장의 분포 현황

시도별	사료협회	농협계통	외국인 합작회사	기 타	계
서울	15	1	—	1	17
부산	5	2	—	—	7
경기	10	4	1(4)	2	17
강원	—	1	—	—	1
충북	1	—	—	—	1
충남	4	4	—	1	9
전북	2	1	—	1	4
전남	1	1	—	3	5
경북	1	2	1(1)	—	4
경남	2	—	—	1	3
제주	—	—	—	1	1
계	41	16	2(5)	11	70

주. ()내의 숫자는 총 외국인 합작회사를 말하나 총 5개 회사중 3개소는 한국사료협회 회원이고 2개소는 어느 곳에도 가입되지 않았음.

2. 배합사료의 생산추세

가. 배합사의 생산현황

1966년 이전의 배합사료 생산은 단미사료 이용으로 극히 미미하여 년산 5~7만톤에 불과하였.

으며 배합사료생산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68년도 이후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2~13만톤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양계사료로서 전체배합사료의 8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돈 및 축우사료가 6~11%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축산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양돈 및 축우사료 생산보급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배합사료 수요증가에 대비 합리적이고도 항구적인 원료 확보책과 품질향상책이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배합사료보급의 합리화

오늘 날 양계사료는 품질이나 물량면에서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이제까지 부업경영으로 단미사료를 주로 이용하여온 양돈 및 축우사

료의 획기적인 보급개선책이 없이는 양축경영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단위당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양돈 및 축우사료를 배합사료로 공급할 경우 문제점도 없지 않으므로 농가가 열가로 구입할 수 있는 사료자원이나 자가사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옥수수, 대두박 및 패분을 일정비율로 배합한 농축사료를 사료공장이 생산하여 주고 각 농가는 이와 같은 농축사료에다 2~3배의 자가사료를 섞어 먹일 경우 상당한 사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또한 단미사료 이용에서 오는 사료의 낭비와 폐단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농축사료의 규격을 공정규격에 책정하여 당국이 고시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아직 그의 이용율이 낮다 하더라도 양돈 및 축우사료 대책을 위하여 의의가 크다고 본다.

<표 3> 배합사료 생산 실적 (단위: %)

구 분	1967		1968		1969		1970		1971 (1~4)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양계 육성용	15,779	14.7	56,411	25.2	39,815	10.8	73,630	14.5	26,487	13.1
양계 산란용	69,688	65.0	126,782	56.8	235,763	64.1	316,439	62.3	127,405	63.3
양계 부로일터용	1,873	1.7	5,295	2.4	27,134	7.4	69,631	13.7	23,398	11.7
소 계	87,340	81.4	188,488	84.4	302,712	82.3	459,698	90.5	177,290	88.1
양돈용	8,246	7.7	14,671	6.6	26,512	7.2	9,917	2.0	3,398	1.7
축우용	4,579	4.3	7,659	3.4	13,489	3.7	19,333	3.8	12,814	6.4
기초사료	7,091	6.6	12,496	5.6	24,805	6.7	18,616	3.7	7,717	3.8
계	107,256	100	223,314	100	367,518	100	507,564	100	201,215	100
증가율 %	100		208		342		473			

(자료: 농림부)

3. 사료수입실적과 원료확보 개선책

가. 사료수입 실적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 원료를 직접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이후의 일이며 1962, 63년도에는 미공법 480호 제1관으로 미국에서 사료용 옥수수와 수수를 2:1의 비율로 수입하였으나 1964년에 미공법 480호에 의한 사료 지원이 중단되어 1964년에는 농협중앙회가 계

란의 UN군납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수수 5,000톤을 수입하였으나 1965년에 사료수입이 중단되었다가 1966년도 부터 다시 민수불과 정부의 재정차관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종류도 다양화하여 1967년에 21,319톤 1968년에 약 13만톤 1969년에 21만톤 1970년에 30만톤을 도입하였으며 소요의화는 1970년에 2천5백만불 이상에 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적어도 3천5백만불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 보면 사료가격의 안정과 축산업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보다 다양성있는 시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사료 수입 실적을 보면 표4와 같다.

<표 4> 사료별 도입 실적 (단위: %)

년 도 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옥수수	31,310 (9,844)	26,629 (8,905)	5,000	0	2,875	21,319	114,138	188,365	259,340	390,000
어분							13,241	11,769	17,357	60,000
대두박							2,360	7,434	23,542	
옥골분									1,965	
우모분									300	
혈분									300	
계	31,310	26,629	5,000	0	2,875	21,319	129,739	210,227	302,804	450,000

※ 1962. 1963년도중 () 내의 수는 수수 수입량임.

나. 국제적 사료가격에 대처하는 신속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옥수수의 년 평균 수입가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가격이 67.38불(1967) 최고가격이 75.92불(1971)로서 12.6%의 진폭을 보이고 있으나 계절별 최고가격을 보면 1970년도의 엽고병 발생과 한발로 인한 미국의 옥수수 생산감소와 미국내 옥수수 수요증가로 재고량이 격감되어 1970년도 8~9월에는 C&F 톤당 80불선을 마크한 수입실례가 있으며 계절별 격차를 감안할 때 그 대응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주요 단백질사료인 어분은 1968년도에는 조 단백질 65% 규격품이 톤당 152.52불였으나 세계적인 수요증가 경향과 이에 편승한 주요 어분 수출국인 남미 페루정부의 어분어유판매공사(EPCHAP)를 통한 수출장구 일원화 조치는 수입가격을 C&F 톤당 234불까지 폭등되어 대체사료의 이용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두박 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페루의 어분사정과 세계적인 단백질 수요 증대는 대두박 수입가격을 14% 이상 상승시키게 되었으며 70년도 부터는 수입품목을 확대하여 우모분, 옥골분, 혈분, 닭내장사료등 가축가금의 부산물 사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국산대두박 생산공장이 진해에 설치되어 71년 5월부녀 생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두박은 수요전량을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당국의 방침이나 여하튼 이들 사료별 영양적 가치의 비교검토와 경제적 유리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유리한 품목을 선택하여 사료가격의 절감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표 5> 주요사료의 년차별 평균 수입가격 추이 (단위: 톤당 C&F불)

구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옥수수	71.65	72.97	67.60	67.38	72.80	75.92
어분			152.52	181.01	219.75	200.78
대두박			118.60	111.48	117.37	123.99
옥골분					136.17	142.81
우모분					177.60	176.45
혈분					271.92	—
우지						250.08
가금부산물						198.25

(자료: 한국사료협회)

다. 수입품목의 다양화와 수입지역의 확대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원활을 기하려면 사료공급원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물론 국내 자급도 향상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나 국내 자급도 향상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당면 과제로서 사료수입의 합리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미국 일변도로 곡류사료를 수입하고 있으나 곡종도 현행 옥수수에서 밀, 수수 그밖의 유리한 품목이 있으면 추가 책정하고 수입지역도 남미, 호주, 남아연방, 동남아세아 지역으로 확대하

여 가격의 계절별 진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동태파악과 수급안정에 대처하여야 하겠다.

5. 배합사료의 품질은 매년 향상되어 가고 있다

라. 국내 자급도 향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 야한다.

축산식품이 국민의 영양 및 보건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축산식품이 국내 사료자원 활용으로 생산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의 국내 자급도 향상으로 사료수입으로 인한 외화소비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축산식품이 전 국민의 식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하에서 축산물의 가격억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될 수 없다.

둘째, 축산물의 유통과정을 보면 생산자가 격과 수요자 이용가격간에는 상당한 유통마진이 있으므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자가격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축산물의 생산조절로 축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이상과 같은 축산물 적정가격유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에 맞추어 다소의 사료가격 인상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료의 국내자급도 향상으로 축산업의 국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날 배합사료의 품질은 가축영양학의 진보, 기술개발 의욕의 고취, 양축수준의 향상, 기업가의 봉사정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학계 및 시험 연구기관의 협조와 시험실 활용등을 통하여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표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림부의 배합사료검사 결과가 말하여 주고 있다. 사료검사 결과를 보면 1967년도의 총검사 건수 555건에 대하여 21.4%에 해당하는 119점이 불량사료로 판정되었으나 1968년 19.6%에 1969년에 14.7% 1970년도 15.9% 1971.1~5월에 11.2%가 위반되어 년 평균 2.5%씩 불량사료가 감소되고 있다. 특히 1970년이 1969년에 비하여 불량사료가 1.2% 증가한 것은 조단백질이 양계용사료의 경우성분보증량의 30%가 초과할 경우 불량사료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조단백질초과로 30점이 위반되었기 때문이다. 사료별로 분석하여 보면 육추용은 1967, 1968에 30% 이상이 성분량미달로 판정되었으나 71년에는 11.9%만이 미달되었고 성계용사료는 11.5%에서 15% 범위가 함량미달이며 부로일러용 사료는 1970년에 27.7%에서 금년에는 11.7%로 매우 향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소속업체별로 사료검사 결과를 보면 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사료공장은 사료협회나 농협을 막론하고 매년 향상되어 사료

<표 6> 배합사료 검사 결과 추이

구 분	1967			1968			1969			1970			1971(1~5)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양계 육추용	211	67	31.7	256	77	30.0	219	44	20.1	183	31	16.9	101	12	11.9
양계 산란용	310	46	14.8	351	53	15.0	433	50	11.5	376	49	13.0	202	26	12.9
양계 부로일러용				14	2	14.2	52	9	17.3	83	23	27.7	38	2	5.3
소 계	521	113	21.6	621	132	21.3	704	103	14.6	642	103	16.0	341	40	11.7
양돈용	16	4	25.0	17	1	5.8	14	1	7.1	6	1	16.6	5	0	0
축우용	10	2	20.0	19	0	0	19	0	0	13	0	0	19	1	5.2
기초사료용	8	0	0	22	0	0	11	6	54.5	1	1	100	—	—	—
계	555	119	21.4	679	133	19.6	748	110	14.7	662	105	15.9	365	41	11.2

<표 7> 업체별 배합사료 검사결과 대비표

업체 별 년 도	사료 협회			농협계통			외국인 합자회사			기 타			계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검사	위반	%
1 9 6 7	404	89	22.0				151	39	25.8				555	119	21.4
1 9 6 8	411	73	17.8	224	53	23.7	24	3	12.5	20	4	20	679	133	19.6
1 9 6 9	511	67	13.1	181	31	17.1	30	10	33.3	26	2	7.7	748	67	14.7
1 9 7 0	461	74	16.0	142	20	14.0	46	8	17.4	13	3	23.1	662	105	15.9
1 9 7 1	269	27	10.0	66	8	12.1	22	5	22.7	8	1	12.5	365	41	11.2

협회는 금년에 10%가 지적되고 농협계통은 12.1%가 지적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중 사료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모회사만이 1968년에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25.8%가 사료검사에서 불량사료로 지적되었고 1969년에 33.3% 1970년에 17.4% 1971년에 22.7%가 불량사료로 적발되어 전혀 향상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비록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료검사가 사료의 일반 조성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적어도 메이커가 양축가에게 보증하고 있는 성분량보증표에 표시된 내용에 미달되는 불량사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겠으며 해당 메이커는 모든 양축가가 납득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고 당국은 보다 외자 도입의 기본시책에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환율인상이 사료가격에 미치는 영향

당국의 6.28 환율 인상조치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당국이 하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맥분도 통제가격에서 해제하면서 시도지사에게 배합사료가격을 사정토록 지시하고 또한 가격인상을 불허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측정 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우리가 가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격양등

요인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불려진 인상만을 불허한다 말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당국이 환율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축산물가격이 인상되도록 모든 조치를 과감히 취하여 주면 배합사료는 해결되는 것을 현 여건하에서 배합사료만의 가격인상을 불허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속단하는 것은 나아가서 견잡을 수 없는 사료가격인상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누가 피해를 입게되며 이와 같은 책임은 누가 지고 누가 수습할 수 있다고 보겠는가.

그렇다고 배합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양축가를 전멸시키게 될 것이므로 더욱 피하지 않으면 않된다. 왜냐하면 환율 인상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당국의 힘이나 양축가 또는 사료제조업자 하나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공동 노력과 협조로서 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료공장은 현실여건을 직시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인내와 절제 그리고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양축가와와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료공업이 발전하려면 어디까지나 연관산업의 균형된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축가의 안정된 경영과 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적인 판매가격의 대폭인상을 피하고 양축경영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공동협조로 난국을 타개하여야 할 것이고 양축가는 축산물의 계획생산으로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생산조절을 기하는 것이 경영합리화의 첩경이라고 사료된다. □ □